

① 치협·장애인먼저실천중앙협의회 청주교도소 방문

치협과 장애인먼저실천중앙협의회(상임대표 이수성 전 총리)가 공동캠페인의 첫 번째 사업으로 지난 7월 11일 청주교도소를 방문, 장애인 재소자를 위한 치과진료실 개원식을 갖고 장애인 수용자에 대한 사회의 관심을 촉구했다.

지난 85년 장애인 특화교도소로 지정된 청주교도소에는 현재 700여명의 재소자중 등록 장애인을 포함 60~70여명 가량의 장애인재소자가 수용돼 있으나 열악한 치과진료시설로 인해 이가 아파도 제때에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주)산홍은 치과진료용 유니트체어 및 장비를 기증했고 동행한 치과의사와 위생사들은 새로 오픈한 치과진료실에서 구강검진과 치료를 해 재소자들을 기쁘게 했다. 이번 행사이후에는 청주시치과의사회(회장 남수현)가 지속적으로 구강검진과 치료를 펼치게 된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임훈순 치협 부회장, 김지학 공보이사, 조영식 기획이사, 정충모 충북치과의사회 회장, 남수현 청주시치과의사회 회장, 이수성 전 총리, 사랑나누기 치과의사모임 임지준 공보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주 SBS, YTN, EBS, 극동방송, 내외경제 등 방송·신문 등 언론매체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② 내년 서울 아·태 회의 북한 치의 2명 초청, 김광식 방북 후 귀국

치협은 지난 7월 23일 북한측에 내년 4월에 개최될 아세아태평양치과연맹 서울총회 및 종합학술대회에 구강의사 2명을 초청한다고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또한 이날 북측의 보건의료관계자와 토론하는 시간을 마련, 남북한 상호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양측의 보건의료 현황에 대해 토의했다.

치협을 대표해 북한을 방문한 김광식 치협 부회장은 지난 20일부터 25일까지 5박 6일간의 북한 방문 일정을 마치고 돌아와 이같이 밝히고 의약품 및 원료 등 북한에 보내는 물품을 성공적으로 보냈다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지난 7월 23일 북측의 보건의료관계자와 토론하는 자리에서 내년 제24차 아세아태평양치과연맹 서울총회 및 종합학술대회에 북한의 구강의사 2명을 초청하는 공문을 정식으로 전달하고 남북한 학술교류 및 상호협력사업 등에 대해 토의하는 등 남한 치의학과 북한 구강의학의 상호이해를 증진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

김 부회장은 또 21일에는 민족화해협의회 관계자와 식사를 겸한 환영회를 가졌으며 22일에는 만경대 등 평양 근교의 관광지를 둘러보고 오후에는 한국의 녹십자와 합작으로 건설된 녹십자정성제약을 방문했다. 이어 24일에는 민족화해협의회 관계자와 회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북은 치협 뿐만 아니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와 의협, 병협, 약사회, 한의협, 제약협회 임원이 참석했다.

③ 남북 치의학 교류 불교든다, 남북치의학교류지원협력위원회 창립



남북 치의학 교류를 통해 북한 치의학계 발전에 기여하고 북한에 부족한 치과기자재를 지원하자는 취지로 남북치의학교류지원협력위원회가 창립됐다.

남북치의학교류지원협력위원회는 지난 7월 11일 조선호텔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공동위원장에 이병태 원장, 정재규 치협 부회장, 손흥규 연세대학교장 등 3명이 추천, 참석자들의 박수로 선임됐으며 감사에는 명노철 서울신협이사장, 나성식 원장 등 2명이 선임됐다.

남북치의학교류지원협력위원회는 오는 2002년까지 북한의 8개 도급 지역에 소아치과 개설 및 기타사업을 위해 총 3억원의 성금모금행사를 펼칠 계획이다. 이중 2곳은 올해 안으로 개설될 예정이다.

협력위원회 창립에는 치협 임원, 대학 교수, 개인의, 업계 관계자 등 108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했다.